



국내 양돈계열화 사업 동향과 향후 전망

1. 들어가는 말

농 용 자재의 생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농산물 생육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재를 위한 농·축산물의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경영체(Integrator=계열주체)가 일괄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품질을 향상시켜 대외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이 계열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계열화 사업을 가장 먼저 도입한 분야는 육계산업으로, 현재 전체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육계농가는 싫든 좋든 이 계열화 사업에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계열화 사업은 육계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 부문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낙농분야에서는 홀스타인 거세우의 브랜드 사업을 계열화 사업으로 시도하고 있고, 토종닭에 대한 계열화사업에도 정부지원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2년부터 오리를 축산계열화사업에 포함시킴에 따라 2003년에는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압 장, 육가공장 사업 중 2종 이상 보유한 업체에 한해 계열화사업 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또 2년 이상 자체 계열화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도 계열화사업 지원 대상이 된다. 종 오리 부문도 계열화사업으로 우수 실용 오리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오리산업의 체계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우도 계열화 사업을 시작하여 당국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정 주 교수
건국대 생명자원경제학과



2. 양돈 산업의 계열화 사업

이처럼 계열화 사업이 유행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양돈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양돈산업은 80년대부터 경기도 이천의 양돈 단지를 중심으로 계열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전파 속도

쉽게 예상된다.

그런데,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규격돈의 생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격돈 생산문제는 돼지고기 수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내 유통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런데, 규격돈 생산은 종돈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하고, 통일된 종돈의 효

가를 수취하면 된다.

조합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수평적 계약을 통해서 돼지 개체에 대한 성적 및 사양관리는 물론 컨설팅 등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규격돈 생산이 가능해 진다.

종돈이 통일되면 농가의 입장에서 고품질, 규격돈육의 수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양돈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육농가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돈의 품종, 계절, 사료 등에 따라 사료 요구율이나 폐사율을 세분화시킨 평가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육계에 비하여 아직은 미진한 수준이다.

이처럼 육계에 비하여 전파 속도가 미진한 이유는 어린가축, 즉 통일된 종돈의 생산이 병아리 생산에 비하여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돈업의 계열화는 체계적인 종돈 생산 기반이 전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육계에서 병아리가 일시에 생산되듯이 통일된 자돈을 일시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의 구축여부가 양돈 계열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언제인가는 재개될 돈육수출을 대비해 둘 필요가 있음은

과적인 생산은 계열화사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일 협동조합이 양돈계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은 거액의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수평적 계열화를 통하여 통일된 종돈생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조합이 종돈업체와 수평적인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여 우선 통일된 종돈을 생산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사육을 위탁하면 조합원은 위탁받은 자돈과 사료, 동물약품 등의 자재와 농가가 보유한 사육시설과 기술을 활용하여 비육돈을 생산하고 그 댓

고 무엇보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유지는 물론 비육돈 시세의 등락에 관계없이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3. 양돈계열화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계열화 사업 형태는 축종을 불문하고 대동소이하게 추진되므로 앞서 진행된 육계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양돈 계열화 사업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

계열화 사업에 관련한 선두주자인 육계부문은 내부적으

로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생산성 평가기준이 되는 사료 요구율이나, 생존율 등이 참여농가의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평가제가 일부 도입되면서 농가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가 계열주체와 사육농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는 양자간 분쟁의 여지가 상존할 것이다.

특히, 사육 농가가 수취하는 사육보수가 사육농가의 입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인 변수에 의하여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육계 수당 수입은 이러한 변수에 의하여 좌우되어 결국 생산을 담당하는 농가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돈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육농가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를 설정함

에 있어 자돈의 품종, 계절, 사료 등에 따라 사료 요구율이나 폐사율을 세분화시킨 평가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약사회라기 보다는 정(情)으로 얽혀진 사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는 계약에 익숙하지 못한 흠이 있다. 이를 위하여 양돈협회와 같은 단체에서 양돈 계열화 사업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양돈 계열화 사업의 핵심적인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계열주체와 생산주체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 필요를 느끼고 협력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느냐 하는 점이다. 계열주체는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려 하고 사육농가는 모든 계약내용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고 보면 어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중재해주는 기구가 필요하다. 마치 언론중재 위원회와 같은 것이다. 육계산업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

칭 “육계산업 계열화 중재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4. 맺는말

계열화 사업은 축산업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기업경영에서 널리 활용한 경영체계를 원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축산업계에서 그 장단점을 논의할 단계는 이미 아니다. 산업에 관련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생산자는 당연히 단독경영으로 남아야 하겠으나, 오늘날의 산업구조가 도처에 리스트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계열화 체계는 부득이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육계산업도 계열화 체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무한경쟁시대의 양돈 산업의 생존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돈계열화 사업을 조기 정착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육계 생산의 99%가 계열화 사업에 의하여 육계가 생산되고 있음을 볼 때 산업의 참여자간에 공존의식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리 어려운 모험만은 아닐 것이다. **양돈**

